

♡♡소식란♡♡

**선교회 특별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월: Oradell 양로원 / 조미경 집사 인도, 이하나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이문웅 권사(색소폰)  
Rochelle Park 양로원 / 어혜숙 권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Norwood, Buckingham(1st Fl) / 박문희 집사 인도, 김희선 집사 반주  
Old Tappan, Sunrise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화: Cresskill Sunrise / 조미경 집사인도, 강 희 집사/문주미 집사 반주, 김경철 목사 찬양  
Wayne, View / 이에리사 사모 인도, 신은혜 집사 반주  
Teaneck 양로원 / 김도희 집사 인도, 이영립 집사 반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피아노),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반주

◇수: Paramus, Sunrise / 어혜숙 권사 인도, 고현미 집사 반주, 양미영 집사 (플루트), 고하나(첼로)  
Tenafly, County Manor / 김금화 집사 인도, 이경자 사모, Norwood, Buckingham / Jeannie Hwang 선생 인도, 최성화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이문웅 권사(색소폰)

◇목: New Milford 양로원 /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유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이문웅 권사(색소폰)  
Norwood, 은혜 양로원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Rockleigh 양로원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진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Wayne, Atrium / 김진옥 집사 인도, 박미경 집사 반주  
Oakland, Health Care Center / 정준임 집사 인도, 한자경 집사 반주

◇금: Paramus, The Cupola / 공정은 사모 인도, 전원옥 사모 반주, 양미영 집사(플루트)  
버겐 병원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인도, 임향화 집사 반주  
Westwood, Care One / Branda 조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Park Ridge, Plaza Regency / 박경옥 권사, 김선애 집사 인도, 박가희 집사 반주  
Park Ridge, Mill Pond / 박경옥 권사, 김선애 집사 인도, 박가희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5동 /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Metro Church Member

◇2015년 5월 20일 Mother's Day에 양로원에 전달할 선물을 지원해 주신 김영주 집사(Leemode International, Inc.)께 감사드립니다.

**선교회원 동정**

◇고국 방문 및 여행: 윤희주 집사, 전은옥 사모, 유경민 학생, Daniel Seog 학생(한국), 김령숙 권사 부부(한국이주), Brenda Cho(California),  
◇단기선교: Nicole Oh(Philippines, 6/8 ~6/20), 박성길 장로(카작스탄/키리키스탄/한국)  
◇Music Tour: NY Youth Orchestra Argentina Tour: 유경민, 고하나, 허의진, Jennifer Lee  
Saarburg Music Festival(독일): 허의진 학생

◇음악회: \*양상블 지휘자 김동민 집사/NY Classical Players (Founder, Music Director, www.nycpmusic.org)  
\*O'NEILL'S INSPIRATION (MAY 1,2,3)  
2015 ANNUAL BENEFIT CONCERT, 손열음과 친구들(APRIL 15)  
\*이수진 집사, 정선분 사모- GOOD MORNING CONCERT, MAY STORY(MAY 20)

◇수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양상블 학생 26명 수상  
\*All State Orchestra: Jake Kim(violin)

\*All State Choir: 정유나  
\*NY International Music Concours: 유경민 (violin 2nd place), 고하나(cello 1st place)

\*International Grande Music Competition 1st Prize: 고하나(cello)  
\*Bergen Philharmonic Orchestra Young Artist's Competition: 고하나 (cello finalist)  
\*National Young Artists Chamber Music and Ensemble Competition: 폴 윤(cello 2nd place)  
\*International Virtuoso Competition: Daniel Seog(violin 2nd place)  
\*Mannes Prep Honor Program: Daniel Seog(violin)

◇입학축하: College Destination - 박연주 University of Notre Dame  
손재승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경민 Jacobs School of Music at IV Bloomington  
이승호 Columbia University

**\*알림** : 선한이웃 선교회 소속, 선한이웃 앙상블의 새로운 단장으로 **이수진 집사**를 이사회와 선교회 회장단에서 임명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사랑 나눔을 실천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이수진 단장을 위한 기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 일정 ◇◇

- 5월 1일(금): 선한이웃 앙상블연주(Paramus Sunrise 양로원)
- 5월 2일(토): 선한이웃 앙상블연주(제 27대 뉴저지 한인회장 이취임식 축하 초청연주)
- 5월 5일(화): 앙상블 오디션 - 10명의 신입 단원 선출 (Violin-6, Viola-1, Cello-2, Flute-1)
- 5월 9일(토): 선한이웃 앙상블연주(Rochelle Park)
- 5월 16일(토): 선한이웃 앙상블연주(Norwood 은혜가든)
- 5월 22일(10-12), 6월 5일(10-12): 음악회를 위한 봉사자 합창 연습 (포트리 베다니 교회)
- 6월 2일(화): 선한이웃 선교회 이사회 모임
- 6월 5일(금): 양로원 사역 인도자들의 모임
- 6월 12일(금): 선한이웃 앙상블연주(Paramus Cupola양로원)
- 6월 20일(토): 창립 16주년 선한이웃 선교회 기념 자선 음악회 (뉴저지 베다니교회)

**후원해 주신 분들 (2015년 4월, 5월)**

어혜숙, 정구임, 서연희, 정혜령, 임미영, 베다니 교회, Joy Christian Fellowship

수입: \$4,280.00      지출: \$1,021.22

**기도란**

-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
  - ◆ 봉사자들의 참여를 위하여(한국 요양원, Rockleigh 양로원)
  - ◆ 새로 시작한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양로원 사역을 위하여
  - ◆ 선한이웃 선교회의 2대 회장 정준임 집사를 위하여
  - ◆ 선한이웃 앙상블을 위하여

-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 김화영, 박경옥, 어혜숙, 서연희, 양승화  
장 로 : 박성길  
사 모 : 공정은  
집 사 : 김도희, 김선애, 김진옥, 정준임, Branda 조, 박문희, 김금화, 조미경, Jeannie Hwang
- 전도사 : 니콜오,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Metro Church Member

- † 선교사를 위하여  
이강휘 목사(아이티), 박성길장로님(순회선교사)
- † 건강을 위한 기도  
강신여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따님), 김켈리 집사(모친), 김명신 권사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선한이웃 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되기를 바랍니다. 원고와 참여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19)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Greeting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Due to the sudden and unexpected departure of Kim Myung Shin Kwonsanim, I have been appointed by the Board to serve as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Knowing well of my shortcomings, I have accepted this honor with a great burden in my heart. I prayerfully hope that the ministry will continue to strive to expand its programs of evangelism and offerings to the community.

My life with Good Neighbor Ministry began unexpectedly. A pastor from my church told me that the church was starting a nursing home ministry and he invited me to help out. I reluctantly showed up just to make my pastor happy. It was the Actor's Home in Englewood when I first met Kim Myung Shin Kwonsanim. As she was leading the first praise worship, her passion and boldness for Christ were evident and impressive. After the worship, my pastor introduced me to Kim Myung Shin Kwonsanim and announced that he appointed me to serve as the new leader for the Actor's Home ministry. I was dumbfounded! I could not believe that he made his announcement without asking me. I challenged his decision and requested to correct what he had done. This was how my relationship with the Good Neighbor Ministry began. Already 15 years have passed and I must confess that the ministry I unwillingly started has become my greatest joy today.

“Do you love me?” Jesus asks us this question as he once asked his beloved yet distraught disciple, Peter. This question triggers discomfort to many as it did to Peter. Although it's a question that cannot be more intimate when asked, yet often, it's a terrifying question. As God's creation, we are made to love, we are made to give love, and we are made to receive love. We are called to love God and called to love one another. However, we find ourselves constantly wrestling with 'love'. Are we capable to experience love in the way God intended? With profound gratitude, I have learned through the nursing home ministry that Jesus asks this question not to access my love for him but to remind me that I must remain in his love. Only when we a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source of love, we learn to love God and love others. Dear friends, are you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shining through you and your life in your daily walk? It is my prayer that you respond to Jesus, “yes, Lord! I love you today and everyday!” as you serve your neighbors through the Good Neighbor Ministry.

Joon Im Chung/Director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김명신 권사님의 부재로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귀한 선교회를 이끌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나눔을 위해, 그리고 선교회의 비전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걸어갈 기도합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가족들과 함께 양로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양로원 사역을 시작하니 첫날 나와서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반강요 하시는 목사님 때문에 투덜거리며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교회 근처 앵글우드에 있는 예술가 양로원이라는 곳에서 김명신 권사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예배를 인도 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열정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찬양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서는 저를 권사님께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예술가 양로원 사역 리더로 섬길 거라 발표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의 한 번 없이 결정하시고 또 선언해 버리신 목사님께 항의도 해 보았습니다. 저와 선한이웃 선교회와의 관계는 이렇게 반강제로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은 제 삶에서 매우 소중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던 이 질문은 매일 저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사랑에 서투른 우리에게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자녀 된 자들에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동이 없고 기쁨이 부족한 생활 속에서 '사랑'과 늘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머물라 하시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인 것을 선한 이웃 양로 사역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귀한 진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봉사 사역을 통해 "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준임 집사

네팔 지진 이재민 돕기, 아이티 학교 보조와 해외 순회 선교 후원

**창립 16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일자: 2015년 6월 20일(토), 오후 7시  
장소: 베다니 교회(491 Alps Rd, Wayne, NJ)  
출연자: 선한이웃 앙상블, AK Duo-Piano/Cello Duo,  
SoYeon Park-Piano, ELLY Suh-Violinist, JiHyun Jang-Soprano

### GNE Reflection

I am incredibly thankful to have had the chance to be a part of the Good Neighbor Ensemble for the past 4 (will soon be 5) years. Being an ensemble member has taught me so much, not only about cello, but about interactions between people. It takes more than just technical skill for an ensemble as large as ours to perform without a conductor to guide us at every concert, and the teamwork displayed by such a feat continues to humble me to this day. Though the ensemble, I learned to work as part of a whole, and I gained a greater apprecia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unity through shared purpose. It was also through the ensemble that I had the honor of serving some of the most open, appreciative audiences that I have had the good fortune to encounter. The elderly at the nursing homes we visit are always my favorite audience because of their genuine gratitude towards us, regardless of how we perform that day. Their uncurbed enthusiasm for us was always a source of inspiration to work harder and rehearse more diligently. Additionally, through the ensemble, I have had the honor of meeting and performing with fellow students far more skilled than me, allowing me to grow as a musician.

Many events occurred this past year that affected the ensemble greatly. Yet in spite of the tumult, the ensemble remained intact, for which I am very relieved and grateful. I am always thankful for our solid support system, comprised of all the hardworking parents, our wonderful conductor, our tireless director, and of course, 권사님, who has become one of my foremost inspirational figures. I will look back on my time in the ensemble with fondness, and I will continue to take with me the lessons learned here to college and beyond.

The ensemble is fortunate to always have so many talented students, and I wish everyone the best of luck.

Alexandra(연주) Park



<어머니날 선물 증정 / Buckingham, Norwood, 은혜양로원>

### 시쓰기

환해집니다  
환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견딜수 없는 날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길이 보입니다

당신에게 보입니다 정제된 문체  
시어(詩語)같은 당신곁에 서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홀로 얼음바위를 오릅니다  
혼자였기에 적막에 기댈수 있었습니다  
적막했기에 당신을 읽을수 있었습니다

나의 시詩 나의 詩人 당신은  
순결한 문장  
떨리는 마음으로 써내려 갑니다  
눈물의 펜으로 그려 갑니다  
새벽을 지나가는 기차소리 위로  
철도길 옆 흰 백합이  
이슬을 토해내고 피어납니다

김 은자 권사/시인



<선한이웃 앙상블 연주 // Englewood, 예술가 양로원>



<선한이웃 앙상블 연주 / Rochelle Park, Bristor Manor 양로원>

### Bedside Ministry for the Dying

When my father had passed away couple of years ago, he had hospice service at home and was constantly surrounded by family. He had accepted the Lord and was at peace the final days before he took his last breath. We know that his spirit is with the Lord and that he was freed from the suffering and pain. He was a blessed man to have been surrounded by loved ones, supported through the final days of painful suffering and above all, was blessed to have had believers around him to usher his soul to the Lord.

Unfortunately, too many in America are not only alone when they take their last breath, but spend long days and weeks of suffering leading up to their death completely alone. That hour of death is the most important time in our life, even more than that of our birth. It is at that moment of death where our eternal destiny is determined; whether we will meet our Lord face to face or eternal separation from our Heavenly Father. A time when faith in God is most needed with the certainty of eternal rest in heaven. How necessary and how critical it is for Christians to minister the gospel and to pray for those in nursing homes during their final days of their life to be at peace with God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Ministering to residents in nursing homes is like harvesting in an incredibly huge field that you just can't get to them all, a field of souls desperately in need of eternal hope and ready to be harvested for God's Kingdom.

It has been our prayer that we can expand our ministry to pray for the very sick and the dying in addition to the weekly worship service. Starting October 2014, the Lord has opened up an opportunity for our GNM (Good Neighbor Ministry) Wayne View team to visit patients in their last stage of their life. Every week, after worship, we are informed by their staff of any patient(s) in critical stage and we visit 2-3 rooms to pray for those that are very sick or nearing death.

When informed of someone in their last stage, we enter their room to minister. Sometimes, the patient is surrounded by family; other times, completely alone with no family to

ever visit even after death. Sometimes coherent, but other times, just hanging on with heavy breathing. Regardless, we introduce ourselves and we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from the Word of God, sometimes we sing a hymn song, and we pray for them. We do this by faith in God's supernatural power that even if they are not conscious that their soul and spirit understands the language of God's Word and the power of praise and prayer that supersedes physical condition and intellectual understanding.

Over the months, we have been deeply blesse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inister and pray for grace and mercy over many souls. The Lord has been gracious and has used us to lead souls to accept the Lord before passing away, to pray for strength and encouragement in the final battle of suffering, to pray for the terminally ill and to bring comfort for the family members. When we are notified of the passing away of someone we have prayed for, we are sad but also thankful that we had the opportunity to bless that person with the Word of God and pray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efore departing for eternity.

I will close this writing with a testimony and I hope that you will be blessed as we have been deeply touched. The daughter of one patient we had visited several times before passing away had written us a letter sharing her testimony. This is a segment of her letter but kept only their first name for privacy. Upon reading her letter, we were just so humbled and so thankful to the Lord for using us in His sovereign plan of salvation.

"We are Jewish, my dad Eugene was an atheist. Last week, he prayed and accepted Jesus as his Savior.

Thank you for visiting him in his room every week.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God and for your faithfulness.

I prayed for my dad for 37 years. God is good! God bless you all! I will never forget you. In Christ, Judy"

Praise the Lord!

Alisa Lee/Wayne View



<선한이웃 앙상블 연주 / Oakland Care Center 양로원>



<선한이웃 선교회 / Rockleigh 양로원>